

Mobility Legal Updates

2025. 3. .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법령 및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린에게 있으며, 출처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BY-NC).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포함하여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3일까지 총 7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과감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그 내용이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을 포함한 모빌리티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관련 주요 행정명령의 개요 및 진행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¹

¹ 본 뉴스레터는 [2025. 3. 9.] 까지 국내에 발표된 뉴스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는 가장 최신의 법령 및 행정명령을 참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2월 13일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여부는 별도로 2025년 4월 2일경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월 26일에는 곧 유럽연합(EU)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2.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2/1 서명, 3/4 도입)

가.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초기부터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의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25년 2월 1일 국제긴급경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²)을 근거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 적용)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나. 진행상황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래 2025년 2월 4일 오전 12:01(동부 표준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로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자 관세 부과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 달이 경과한 2025년 3월 4일 북미

² IEEPA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경제거래에 대한 폭넓은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동 관세 조치에 대하여 보복할 경우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생산기지인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25% 추가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으며 3월 5일 '자동차'에 한하여 한 달 유예가 결정되었고³, 다음 날에는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2025. 4. 2. 까지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도 2025년 3월 4일 기존 2월에 부과한 10% 관세에 더해 10%를 추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는 한편, 캐나다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그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 영향 및 대응방안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예고대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추가관세 조치를 실제로 이행할 경우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활용해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온 400여개의 한국 기업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북미 생산 전기차와 부품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정책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은 한국 등 제3국을 우회하여 미국 수출을 감행하거나, 물량공세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가 한국 시장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철강 및 알루미늄 보편관세 부과 행정명령 (2/10 서명, 3/12 도입)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대하여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해당 행정명령은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우리나라에

³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Ford, GM 등)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잠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즉각적인 반대성명 및 국가 간 협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유예가 지속되거나 관세율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위 25% 추가관세에 더하여 총 5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캐나다 595만t, 멕시코 319만t), 캐나다산 알루미늄은 미국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에 50% 관세가 현실화하면 오히려 한국산 철강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곧 있을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의 시행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상호관세 행정명령 (2/13 서명, 4/2 도입), 자동차 관세 4/2 도입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상호무역과 관세(이른바 상호관세,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발효일은 2025년 4월 2일이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보편관세 또한 같은 날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정확한 세율은 미정이지만 25%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호관세의 대상국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다며 불공정하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하여 불공정 이득을 취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한-미 무역 거래는 2012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모든 품목이 사실상 무관세이므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⁴ 하지만 4월 2일 상호관세가 시행되고,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관세의 적용될 것인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미국 현지 생산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관세율(WTO 가입국끼리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3.3%고 한국은 13.4%여서 한국이 4배가량 높습니다.

5.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과 적대국은 물론 기존의 관행과 협정을 모두 불문하고 강력하게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협상이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앞으로 관세 타킷이 또한 언제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변화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